

출산율 전국 1위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터덕'

영광기독병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 운영기관 결국 포기
사업비 66억 편성됐지만 토지매입·건축비 어려움...수익성도 낮아

전남도가 2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 기록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익성이 낮아 선뜻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9월 전남도에 따르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던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 사업이 최근 무산됐다.

전남도는 영광기독병원을 산후조리원 운영기관으로 선정, 지난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영광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는 사업비 66억원(도비 40억원·군비 17억8000만원·부당부 8억2000만원)이 편성됐으나, 보조사업자인 영광기독병원이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건축비 상승 등을 이유로 최종 포기를 결정했다.

전남은 2023년 합계출산율 0.972명을 기록한데 이어 2024년 1.028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

을 넘어서면서 2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 지자체다.

영광군은 최근 6년 동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데다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곳이다.

더구나 영광은 포함, 담양, 곡성, 화순, 장성 등 전남 북부권에는 공공은커녕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의료기관들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외면하고 있어서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만 유치가 가능하다.

전남 북부권은 인접 대도시인 광주시와 차량으로 30분 안팎의 거리에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1주일 이용료가 70만원대로, 광주지역 이용료인 150만원과 견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

최근 센짜리를 출산한 영광주민 김호영(기명·39)

씨는 "아이 샛을 낳는 동안 광주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가족들이 이동하는 시간과 비싼 민간 조리원 비용을 고려하면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은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도 출생아수는 8226명으로 공공 104실, 민간 145실 수준의 전남지역 산후조리원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연간 3000여명의 출생아는 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광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운영기관의 낮은 수익성을 감안, 전남도의회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기준 77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조례를 제출한 상태다. 조례안은 이달 중순 전남도의회 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3만원 인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겠다는 의료기관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은 소아과와 분만시설을 모두 갖춘 곳만이 간신히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라며 "쉽지 않겠지만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24호인 광주시 북구 망월동 5-8구묘지(왼쪽)와 11호 광주시 불로동 옛 광주적십자병원.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5·18 구묘지'·'옛 적십자병원', 국비로 새롭게 태어난다

설계비 11억5800만원 내년 정부예산 반영...2028년 준공 목표

5·18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역사를 간직한 '5·18 구묘지'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사적 지정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새롭게 태어난다.

9월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각각 7억1300만원, 4억4500만원이 반영됐다.

두 곳 모두 광주시 5·18 사적지로 지정된 지 28년이 지났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망월동 묘역'으로도 불리는 5·18 구묘지는 1980년 당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이 청소차 등에 실려 묻혔던 비극의 현장이다.

유족과 시민이 묘역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진상규명 투쟁의 심장부' 이자, 이한열 열사

등 민주열사들이 안장된 '민주주의의 성지'로 꾹힌다.

시는 구묘지를 '5·18 민주공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주모 공간을 넘어 'K-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이자 역사적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으로 잘 알려진 옛 광주적십자병원도 국비(50%) 지원을 받아 2028년까지 새단장된다.

항쟁 당시 시민들이 부상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현혈에 동참하고 의료진이 밤샘 치료를 이어갔던 '생명 나눔'의 현장인 이곳은 건물의 역사성을 고려

해 외관 원형은 최대한 보존한다.

내부는 미래 세대와 시민들이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치유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국비 확보는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5·18 사적지의 국가적 관리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옛 광주교도소, 국군광주병원 등 다른 주요 사적지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종합적인 보존·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사적지가 국가의 책임 아래 보존되고 활용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사적지가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회사분할에 따른 공공 (재권리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당사(본사)회사는 2025년 12월 09일에 민주주총회에서 제정된 회사분할(민주주총회 제530호의2) 이하에 규정하는 회사분할의 절차에 따라 본당회사의 사업 중 정부안전진원사업부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입체를 분리하여 '가칭' 주식회사 에스원에너지(이하 '별도설립회사')을 인정분할의 범위으로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립되는 회사는 본당회사의 재무 중에서 세무회계회사에

서 승계하기로 정한 재무에 대하여 책임만을 부담하며, 본

할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당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재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회사의 재권자는 당사(본사)회사의 주식을 1주당 1주에 이하의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기로 바랍니다.

이 분리과 함께 본당회사의 주식에 대한 보유주식수에 따라 분리설립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조건으로 본당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소각(감자)하는 바,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 제정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기로 바랍니다.

이 분리과 함께 본당회사의 주식에 대한 보유주식수에 따라

분리설립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조건으로 본당회사는 회

사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소각(감자)하는 바, 주주 및 질

권자는 이 공고 제정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기로 바랍니다.

2025년 12월 10일

주식회사 뉴론

전라남도 나주시 분화면 분화농공단지길 118-14 대표이사 김재일

이전 02-6251-8012 ~ 팩스: 02-6251-7777

E-Mail: srkin@solueenergy.co.kr

* 해당 사업 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보도

민언련 '올해의 좋은 보도상'



광주일보의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연속 보도(11월3일·10월·11월·21일 보도)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올해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민언련은 '11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에 광주일보, 경기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4개 언론사가 공동 기획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 등 2개 작품을 뽑았다고 9일 밝혔다.

공약 추적단 보도는 지역 언론이 힘을 합해 각 지역 정치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 정보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사각지대였던 지방의원 공약의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전국 단위의 공약 관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약 추적단 보도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광역의회에 공약 기재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언련 올해의 좋은 보도상은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유익한 보도를 한 언론인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 11회째 시상하



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서울 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관에서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h@kwangju.co.kr

"일 참 잘하신다"...이 대통령 정원오 칭찬

여수 출신 '행정의 달인' 서울 성동구청장 화제



여천군 소라면 현천리(이)에서 태어난 그는 여수소나 남국민학교와 화양중, 여수고를 졸업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상경한 뒤 학생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행정과 변신했지만, 그

의 이력에는 항상 '여수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여권 내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구청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픽(Pick)'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연임에 성공하며 실력을 검증받은 데다, 지방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성공 신화를 썼다는 서사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서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 출신 인사가 서울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정 구청장의 행보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고민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못 밟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밟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062)521-4109

신